대선 코앞에 윤석열 공개 행보 … 국힘 '부글부글'

부정선거 주장 담은 다큐 관람…국힘, 표심 악영향 미칠까 전전긍긍
이재명 "본인 당선된 시스템 부정"…김문수 "의혹 제기하면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 PD,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던 만큼, 관련 영화를 관람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건가"라며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주세요"라며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를 탈탈 다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라도 해야지, 그냥 놔둔다면 당이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만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의혹 해소'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해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47일 만의 공개 행보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다"면서 "밖에 나가 있지만 모든 뿌리와 인간관계와 앞으로 지향점은 국민의힘 쪽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이에 대해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앞서 2월 16일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겉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깊이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나가지 않았나"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3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투표권 보장을"

민주·민주노동당 "휴일 지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택배 회사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물류 노동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이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 투표일이 평일이라 본투표일마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 고용직,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기업에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택배 물류 종사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거침없는 상승세

▶1면에서 계속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4월 2주차(1506명 대상·자동응답조사·응답률 4.7%)·4월 3주차(1504명 대상·자동응답조사·응답률 6.6%)·4월 4주차(1505명 대상·자동응답조사·응답률 7.3%)·5월 1주차(1509명 대상·자동응답조사·응답률 6.4%)·5월 2주차(1508명 대상·자동응답조사·응답률 6.7%)·5월 3주차(1509명 대상·자동응답조사·응답률 8.4%)이며 표본오차는 모두 ±2.5%p에 신뢰수준 95%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 표심 잡아라" 대권주자들 화력 집중

유권자 절반 최대 표밭…서울·경기·인천 누비며 지지 호소

대권주자들이 21일 사전투표일(29~30일)을 앞두고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다.

전체 유권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사실상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325만5747표(득표율 50.56%), 이재명 후보 294만4981표(45.73%)로 31만766표 차이가 났다. 전국 표 차이(24만7077표)보다 서울에서의 표 차이가 더 났기 때문에 여야가 21대 대선에서도 '수도권 대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표심에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권을 순회하며 사흘째 수도권 표밭을 누볐다.

김 후보는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권에서는 '안보' 관련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내고 있다.

김 후보는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도 나선다. 김 후보는 고양시 청년 농업인과 모내기를 함께하고 새참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퇴근길 양주시에서 벌이는 유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김 후보 지지를 위해 총집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날 인천을 찾아 사흘째 수도권 공략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차례로 방문한 뒤 저녁에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석패한 뒤, 3개월 후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승리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만큼, 정치적 고향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오늘 계양구민들께서 정치인 이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할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돼 주민의 성원·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이 물류와 바이오산업으로 세계를 주도한다는 경제 강국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19일)과 경기 북부(20일)에 이어 이날 인천까지 사흘 연속 수도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서5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지지율이 우상향 곡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보다는 꾸준히 우리를 지지해주는 젊은 세대와 개혁을 바라는 진취적인 유권자에게 도리를 다하겠다"면서 수도권 표밭을 다졌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2차)

본 회사는 2025년 4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5월 13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2일

주식회사 엔제이랩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벤처지원센터 별관 104호(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청산인 김 형 열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강성열(551223-1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봉황면 용반길 9-27
피상속인 망 강성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428호로 신청하여 2025년 5월 1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2일
• 상속인 : 1. 강용구(820514-1XXXXXX)
나주시 봉황면 용반길 9-41
2. 강형구(831120-1XXXXXX)
나주시 중야1길 42, 106동 1302호
(빛가람동, 센트릴레이크)
• 신고기간 : 2025. 5. 22. ~ 2025. 8. 1.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강용구의 주소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2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48,249㎥상당.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 분	단위	토사	풍화암	연·경암	합계	비고
수량	㎥	-	-	48,249	48,249	신계고가 외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일원(상차위치는 현장설명서에 명기)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 호남고속철도2단계 2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 2025년 06월 02일 14시
나. 입찰등록마감일 : 2025년 06월 05일 14시
다. 개 찰 일 시 : 2025년 06월 05일 15시
라. 낙 찰 자 선 정 : 2025년 06월 10일 (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5일 후 낙찰자 발표)
3. 입찰방법 :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 공개경쟁입찰, 단가입찰(1㎥당), 최고가 낙찰제
입찰자가 제시한 1㎥당 원석대(운반비 포함)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예정자)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가격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상차지를 기준으로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암매각의 경우
1) 현장설명회일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채취업(산림골재채취업 또는 골재 선별·파쇄업)으로 등록한자(지자체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가동이 가능한 크라샤 장비 보유), 현장설명회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야적장을 확보하여 상시 반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및 업면허자가 동일해야하고, 야적장은 동일인(동일법인 또는 동일계열사) 명의의 야적장일 경우와 임대 야적장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임대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한다
3)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시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시 제출한 사업장(야적장 또는 골재생산시설)은 발생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6)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시 제출하여야 한다.(야적장 및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 최소 700㎥이상, 월 25,000㎥이상 발생암 반입이 가능한자
※ 2025년 6월30일까지 약 7,000㎥ 반출 완료 가능한자
나. 공통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야적장 및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골재생산시설 또는 사토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접수만 가능)
• 매 각 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 동부건설㈜ (전남 무안군 무안읍 백로로 301)
• 기 타 문 의 : 시공사 동부건설㈜ 061-454-2200
감리단 ㈜서 현 061-453-4537
2025년 5월 22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